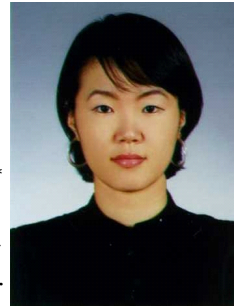


#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smjung@kli.re.kr



##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1970년대 초반 시작되어 1980년대 말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하여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화사회<sup>1)</sup>에 진입하였다.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의 인구비율은 더욱 증가해 2020년 경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 2026년경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고려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 이 글은 노동리뷰(2011) 10월호에 게재된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음.

1) UN의 기준에 따르면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하며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말한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는 사회구조로 변화하는 동시에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던 고령자 노동시장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sup>2)</sup>에 의거하면 5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은퇴하는 연령이기도 하다.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일자리)을 그만둔 평균연령은 평균 만 53세로 나타났고, 50대에 그만둔 경우가 43%로 가장 많았다는 것을 토대로 보면 50대 중반을 실질적으로 은퇴하는 연령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55세 이상 고령취업자와 더불어 고령인구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비율, 즉 고령자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급감한 뒤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던 고령자 고용률은 2005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고령인구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비단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효과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실질적인 은퇴연령인 50대 중반 이후의 연령대에서 노동시장의 참여가 높다는 것은 55세 이후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이후 다른 일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55~79세로 제한하여 일자리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고령취업자는 농림어업과 자영업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고용률이 증가한 시점인 2005년 이후 고령자 노동시장 구조가 어떠한 변화를 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고령취업자들은 주된 자신의 일자리를 그만둔 이후에도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다양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다.

자료의 제약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전국단위 분석을 주로 하였고, 시기의 변화에 따른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서울시의 특징은 가용가능 자료인 「지역별 고용조사」의 2011년 3분기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전국 수준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에 의하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이며,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 2. 고령자 일자리의 특징

### 1. 55~79세 고령자의 주요 노동시장 특징

55~79세 고령자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8.7%에서 2011년 24.4%로 크게 늘어나 1,000만 명을 조금 넘기고 있다. 서울시의 고령자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2011년 3분기 기준 전 연령대비 23.1%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94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인구가 더 많아 여성 고령자는 100만 명을 조금 넘고 남성 고령자는 92만 명을 기록하였다.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이후 47~49%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전체 고령자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6.4%로 2011년 기준 전국(49.7%)보다 낮은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서울시 고령자 남성의 참가율은 61.8%로 여성(32.4%)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 55~79세 고령자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천 명, %)

	전국				서울(2011년 3분기)		
	2000	2005	2010	2011	전체	남성	여성
생산가능인구	6,749	8,116	9,535	10,017	1,940	920	1,019
[비중]	[18.7]	[21.2]	[23.5]	[24.4]	[23.1]	[22.7]	[23.5]
경제활동인구	3,243	3,864	4,682	4,976	900	569	330
(참가율)	(48.1)	(47.6)	(49.1)	(49.7)	(46.4)	(61.8)	(32.4)
취업자	3,170	3,789	4,553	4,856	867	545	323
(고용률)	(47.0)	(46.7)	(47.8)	(48.5)	(44.7)	(59.2)	(31.7)
실업자	73	75	129	120	32	26	6
(실업률)	( 2.3)	( 1.9)	( 2.8)	(2.4)	(3.6)	(4.6)	(1.8)
비경제활동인구	3,506	4,252	4,853	5,041	1,040	350	691
(비경활률)	(51.9)	(52.4)	(50.9)	(50.3)	(53.6)	(38.0)	(67.8)

주: [ ]안은 전체 인구 대비 55~79세 인구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11년 3분기.

전국 2011년 기준으로 55~79세 고령자 고용률은 48.5%를 기록해 절반에 가까운 고령자가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남성은 62.0%, 여성은 36.7% 수준이며, 남성과 여성 모두 2005년에 비해 고용률이 증가했다. 실질적 은퇴연령인 50대 중반 이후의 고용률이 증가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은퇴가 55세 이후로 늦춰졌거나 아니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이후 다른 일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시의 고령자 고용률(2011년 3분기 기준)은 44.7%로 전국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59.2%, 여성은 31.7%를 기록하고 남녀 모두 전국수준보다 낮은 상태에 있다.

## 2. 종사상 지위별 특징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고령(55~79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고령 취업자의 상당부분이 자영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러나 자영업자에 집중되는 정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고령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000년대 중반까지 전체 고령취업자의 40~45%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1년에 이르러 35%까지 감소했다.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인 고용구조의 특수성 측면을 감안한다면, 2005년 이후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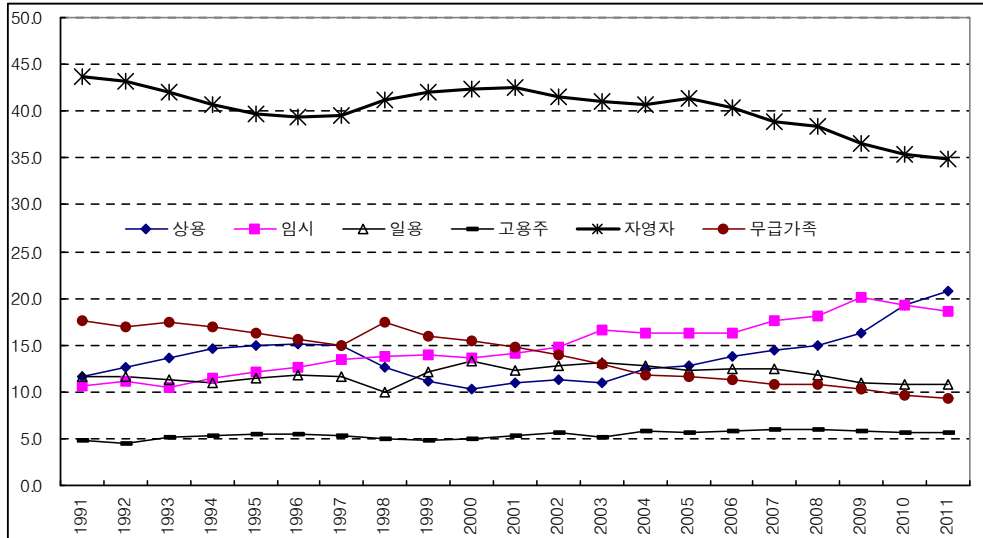
한편, 고령취업자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직 종사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 15% 수준에서 위기 이후 10% 수준으로 감소해 하향평준화를 지속하다가 2004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9년 이후 더 가파른 속도를 진행하고 있다.

임시직 고령취업자의 비중은 1990년대 초반 10%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며 최근 고령취업자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가까워져 두 배가량 증가했다.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실시한 희망근로의 이유로 임시직이 급등하였고,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저학력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일용직 비중은 1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하향평준화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급등한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주 비중은 5% 수준에 꾸준히 머무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고령취업자는 과거 자영자 중심의 고용구조에서 상용직과 임시직 중심으로 임금근로자화되어 가고 있으며, 2005년 이후 그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



주 : 고용원이 있으면 고용주이고, 고용원이 없으면 자영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1] 고령자(55~79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 추이(전국)

200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는 상용직과 임시직의 성별변화를 <표 2>를 통해 살펴볼 수도 있다. 먼저 급격한 증가를 보인 고령자 상용직은 2011년 고령취업자 가운데 20.8%로 2005년 12.7%에 비해 8.1%p나 증가했다. 상용직의 증가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진행되었다. 고령 취업자 가운데 남성 상용직 비중은 2005년 10.8%에서 2011년 15.7%로 증가하였고, 여성 상용직 비중은 2005년 2.0%에서 2011년 5.1%로 고령자가 차지하는 몫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임시직에서 고령취업자 비중은 2005년 16.4%에서 18.6%로 2.2%p 증가했는데, 이는 여성고령자 주도에 의한 것으로 2005년 7.5%에서 2011년 10.5%로 크게 증가한 영향이 반영되었다. 반면 임시직 남성 고령자 비중은 감소했다.

<표 2> 55~79세 고령자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2005/2011)

(단위:천 명, %)

	2005		2011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전 체	3,790	100.0	4,856	100.0
상용직	482	12.7	1,011	20.8
남성	408	10.8	762	15.7
여성	74	2.0	249	5.1
임시직	620	16.4	904	18.6
남성	337	8.9	395	8.1
여성	283	7.5	509	10.5
일용직	463	12.2	520	10.7
고용주	216	5.7	273	5.6
자영자	1,569	41.4	1,691	34.8
무급가족	440	11.6	455	9.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한편, 서울시의 경우 2011년 3분기 기준 고령취업자를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비중은 59.4%,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40.6%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직 비중은 28.6%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20.8%) 대비 높은 수준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임시·일용직은 각각 19.4%, 11.4%로 전국수준대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고령취업자 가운데 자영자는 26.8% 수준으로 전국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농림어업 취업자가 적은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표 3> 서울지역 고령자(55~79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

(단위:천명, %)

	취업자	비중
취업자	867	( 100.0)
상용	248	( 28.6)
임시	168	( 19.4)
일용	99	( 11.4)
고용주	80	( 9.2)
자영자	232	( 26.8)
무급가족	40	( 4.6)

주: 고용원이 있으면 고용주이고, 고용원이 없으면 자영자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11년 3분기.

### 3. 산업별 특징

55~79세 고령취업자의 산업 분포가 2005년에서 2011년 사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표 4 참조). 먼저 전국단위 55~79세 고령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농림어업이다. 그러나 농림어업 취업비중은 2005년 31.0%에서 2011년 21.3%로 감소하였고 취업자도 117만 4천명에서 103만 3천 명으로 뚜렷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농림어업에 종사하던 고령자가 유출한 이후 유입이 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55~79세 고령자 산업별 취업자

(단위:천 명, %)

	전국				서울	
	2005		2011		2011년 3분기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전 체	3,790	100.0	4,855	100.0	867	100.0
농림어업	1,174	31.0	1,033	21.3	5	0.6
광업	2	0.1	2	0.0	0	0.0
제조업	349	9.2	462	9.5	75	8.7
전기·가스·증기·수도	5	0.1	6	0.1	2	0.2
하수·원료재생·복원	12	0.3	12	0.2	2	0.2
건설업	228	6.0	338	7.0	75	8.7
도매 및 소매업	522	13.8	662	13.6	139	16.0
운수업	206	5.4	390	8.0	95	11.0
숙박 및 음식점업	252	6.6	335	6.9	70	8.1
출판·영상 등	18	0.5	22	0.5	6	0.7
금융 및 보험업	43	1.1	60	1.2	17	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0	4.5	160	3.3	69	8.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30	0.8	68	1.4	18	2.1
사업서비스	250	6.6	389	8.0	94	10.8
공공행정 등	86	2.3	188	3.9	34	3.9
교육서비스업	92	2.4	134	2.8	35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33	0.9	156	3.2	31	3.6
예술·스포츠·여가관련	34	0.9	46	0.9	9	1.0
협회·단체·수리·기타	211	5.6	304	6.3	63	7.3
가구내 및 자가	67	1.8	86	1.8	28	3.2
국제 및 외국기관	6	0.2	4	0.1	0	0

주: 제 9차 표준산업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5년, 2011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11년 3분기.

한편, 2011년 고령취업자 중 운수업, 사업서비스, 공공행정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업 등의 취업자 비중은 2005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운수업의 경우 2005년 20만 6천 명에서 39만 명으로 18만 4천 명이 늘었다. 운수업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버스나 택시, 학원 및 유치원 차량운전과 관련된 까닭으로 보인다.

사업서비스에 종사하는 고령취업자의 비중은 2005년 6.6%에서 2011년 8.0%로 증가했고, 보건 및 사회복지업은 2005년 0.9%에서 2011년 3.2%로 증가했는데 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같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자리 확충의 일환인 정부 정책의 측면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지역의 특성상 농림어업 취업자는 0.6%에 불과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 등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서 고령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13만 9천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고령취업자의 16.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운수업(11.0%), 사업서비스(10.8%), 제조업(8.7%), 숙박 및 음식점업(8.1%)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 4. 직종별 특징

다음으로 55~79세 고령취업자의 직종 분포를 <표 4>에서 분석했다. 전국단위에서 2005년은 고령취업자에서 농업숙련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1년에는 크게 줄어들면서 직종구성이 변화했다. 산업별 고령취업자와 마찬가지로 직종별 분포에서도 농업숙련업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2005년 29.2%에서 2011년 19.8%로 크게 감소했다.

농업숙련업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단순노무직은 2005년 25.3%에서 2011년 26.9%로 비중이 증가해 130만 명으로 늘어났다. 단순노무직의 증가는 주로 여성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특히 청소 및 경비관련업과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에서 늘어났다. 한편, 단순노무직과 함께 기능원 및 기계조작업에서 고령취업자 비중이 증가했는데, 기능원 및 기계조작업<sup>3)</sup>은 운전 및 운송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3) 기계조작 등은 6차 직종 대분류상의 8번에 해당하는데 세부 직종으로는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식품가공, 섬유 및 신발, 화학, 금속 및 비금속, 기계제조, 전기 및 전자, 운전 및 운송, 상·하수도 및 재활용처리, 목재·인쇄 및 기타가 있다. 이 가운데 운전 및 운송업은 전체 기계조작 중 약 70%에 해당한다.



&lt;표 5&gt; 55~79세 고령자 직종별 취업자

(단위:천 명, %)

	전국				서울	
	2005		2011		2011년 3분기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전 체	3,790	100.0	4,856	100.0	867	100.0
관리자	126	3.3	137	2.8	24	2.8
전문가	182	4.8	321	6.6	88	10.1
사무직	107	2.8	191	3.9	72	8.3
서비스	316	8.3	444	9.1	86	9.9
판매	438	11.6	536	11.0	113	13.0
농업숙련	1,107	29.2	962	19.8	7	0.8
기능원 등	254	6.7	397	8.2	91	10.5
기계조작업	302	8.0	565	11.6	115	13.2
단순노무직	957	25.3	1,304	26.9	272	31.3

주: 제 6차 표준 직업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5년, 2011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11년 3분기.

&lt;표 6&gt; 서울시 55~79세 고령자 단순노무직 두 자리 직종 취업자

(단위:천 명, %)

	구 성			비 중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단순노무 종사자	271	132	139	100.0	48.7	51.3
건설 및 광업관련	20	20	0	7.4	7.4	0.0
운송관련	14	12	3	5.2	4.4	1.1
제조관련	8	2	6	3.0	0.7	2.2
청소 및 경비관련	149	83	66	55.0	30.6	24.4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64	4	60	23.6	1.5	22.1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	16	11	4	5.9	4.1	1.5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11년 3분기.

한편 서울시의 직종별 고령취업자를 보면, 단순노무직과 기계조작업, 판매업이 전국수준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단순노무직의 경우 27만 2천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고령자의 31.3%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운전 및 운송업이 다수인 기계조작

업의 비중도 높아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업도 고령취업자의 13%에 해당하며 11만 3천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을 통해 서울시 고령취업자의 31.3%를 차지하는 단순노무직을 산업 두 자리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청소 및 경비관련업에 대부분 몰려있으며 전체 단순노무직의 절반이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여성 고령취업자는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에도 많음을 알 수 있다.

### 5. 근로형태별 특징

한편, 2005년 이후 증가한 55~79세 고령자 임금근로자를 근로형태별로 나누어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 비중은 2005년 42%에서 2012년 43.4%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은 2005년 58%에서 2012년 56.6%로 소폭 감소했다.

<표 7> 55~79세 고령자 근로형태별 취업자

(단위:천 명, %)

	2005		2012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55~79세 임금근로자	1,529	100.0	2,713	100.0
정규직	642	42.0	1,177	43.4
비정규직	887	58.0	1,536	56.6
한시	540	35.3	890	32.8
기간제	411	26.9	751	27.7
시간제	182	11.9	582	21.5
비전형	433	28.3	779	28.7
파견	11	0.7	51	1.9
용역	192	12.6	351	12.9
특수고용	62	4.1	77	2.8
가내근로	36	2.4	19	0.7
호출근로	157	10.3	316	11.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와 시간제, 용역근로와 호출근로에 고령 임금근로자가 주로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 취업자가 주로 청소 및 경비업이나 운수업과 관련

된 곳에 몰려있는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05년 대비 2012년에 크게 늘어난 고용형태는 시간제로 2005년 대비 약 10%p 증가해 2012년 2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간제 용역, 호출근로 등 고령 임금근로자가 주로 몰려있는 고용형태도 모두 2005년 보다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6. 고령임금근로자가 일자리를 선택하는 사유

<표 8>의 고령 임금근로자 가운데 일자리를 선택하는 주된 사유를 보면, 가장 높은 응답을 한 사유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이며 55~79세의 47.3%에 해당한다. 이는 2006년(40.7%)에 비해 6.6%p가 증가한 수치이며, 고령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15~54세의 경우 2012년 19.3%인 것과 비교해 보면, 고령임금근로자는 2.5배가량 된다.

<표 8> 고령자의 주된 취업사유(임금근로자)

(단위 : %)

	15~54세		55~79세	
	2006	2012	2006	201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근로조건(임금, 시간) 만족	31.3	32.3	24.6	23.3
안정적 일자리	27.6	30.3	19.0	17.3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	18.0	19.3	40.7	47.3
원하는 일자리 없어	5.6	3.9	5.6	3.5
전공·경력이 맞지 않아	1.6	1.2	1.0	1.0
경력을 쌓아 이동하기 위해	6.4	4.9	0.5	0.3
육아·가사 병행	1.9	1.9	1.9	2.7
학원·직업훈련 병행	2.2	2.5	0.0	0.0
노력한 만큼의 수입	3.8	2.4	3.9	2.6
근무시간 신축적	1.1	1.0	1.9	1.5
기타	0.4	0.3	1.0	0.6

주: 주된 취업사유를 묻는 항목은 2006년 처음 실시되었기 때문에 2006년 8월과 2012년 8월을 비교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한편, 임금이나 시간 등 근로조건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2012년 23.3%로 2005년 대비 1.3%p 감소하였고, 안정적인 일자리여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2012년 17.3%로 2006년 대비 1.7%p 감소하였다.

한편, 저임금근로자를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받는 근로자로 정의할 경우 55~79세 고령 저임금근로자는 2012년 49.6%로 전체 고령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9 참조). 2006년에 비해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령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55~64세 저임금고용은 2012년 39.7%로 2006년 대비 7.8%p 감소한 반면, 65~79세의 저임금고용은 75.8%로 2006년 대비 3.2%p 증가하였다.

<표 9> 연령범주별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근로자 비중(2006/2012)

(단위 : %)

	15~54세	55~79세	55~64세	65~79세
2006	22.4	54.0	47.5	72.6
2012	20.1	49.6	39.7	75.8

주 : 1) 임금변수는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임금을 이용하였고, 노동시간은 평소 1주 근로시간 변수를 이용해 월평균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적용.

2) 시간당 임금은 매주 일을 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것임.

3)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사실상 고령자들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가 생활비 등 당장의 수입 때문인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생계형으로 근로하는 고령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과 고령임금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가 저임금고용 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조변화에 따라 고령자도 더 높은 연령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계문제와 함께 사회가 떠안아야 할 부양비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생계형 근로가 많다는 것과 저임금고용이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많다는 것은 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제도의 미비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 3. 맺음말

과거 농업과 자영업을 두 축으로 지탱해 왔던 고령자 노동시장구조는 고령자 고용률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인 2005년 이후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용직과 임시직 중심으로 임금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지역의 특성상 임금근로자 형태의 고령취업자가 더 많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고령취업자가 많은 산업은 주로 운수업, 사업서비스, 공공행정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업 등에 많았고, 2005년 대비 비중도 증가했다. 서울시는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의 분포가 높았다.

주된 직종은 전국단위와 서울시 모두 단순노무직과 기능원 및 기계조작업에 주로 몰려있었고, 서울시는 판매업의 비중도 높았다. 단순노무직은 주로 청소 및 경비업과 가사·음식 및 판매관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기능원 및 기계조작업은 운전 및 운송업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고령취업자는 몰려있는 산업과 직종이 한정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일자리와 소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가구소득이나 이전소득과 같은 기타소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고령 임금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비중,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하다' 고 응답한 생계형 근로 비중 증가, 높은 저임금 고용비중 등 고령 취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몰려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들의 소득 안정성이나 일자리의 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던 고령자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동시장 참여 및 고령근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기본적으로 고령사회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부양하는 사람은 더 필요한 사회인데, 이러한 사회변화는 단순한 노인복지 정책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여러 정부 정책들의 일환으로 사회적일자리의 증가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등 정책적 지원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널리 확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고령자 일자리 특징을 분석한 결과 고령층 취업은 일부 산업·직종에 한정된 곳에 몰려있으며 사실상 열악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젊은 세대가 고령 세대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사회구조로의 변화 속에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너무나 열악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지는 않은지, 고령자 고용대책 마련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의 개념으로 확장시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성재민(2011), 상용직 근로자 증가에 대한 분석, 노동리뷰,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안주엽(2011),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2003),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http ://kosis.kr/](http://kosis.kr/)( 국가통계포털)